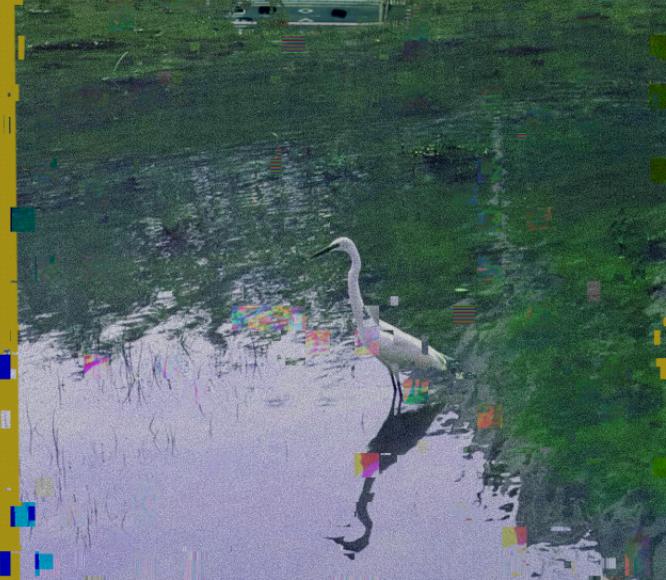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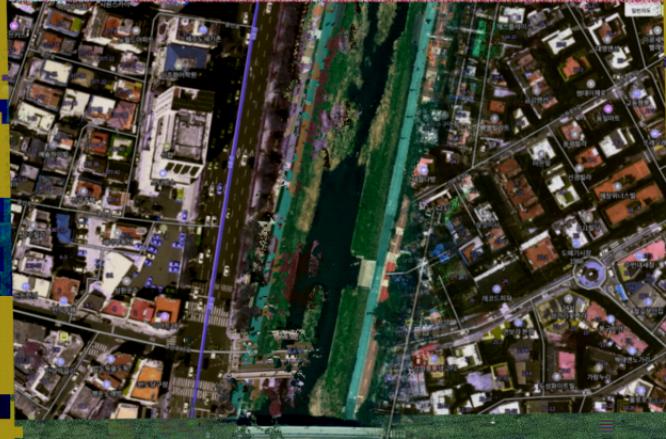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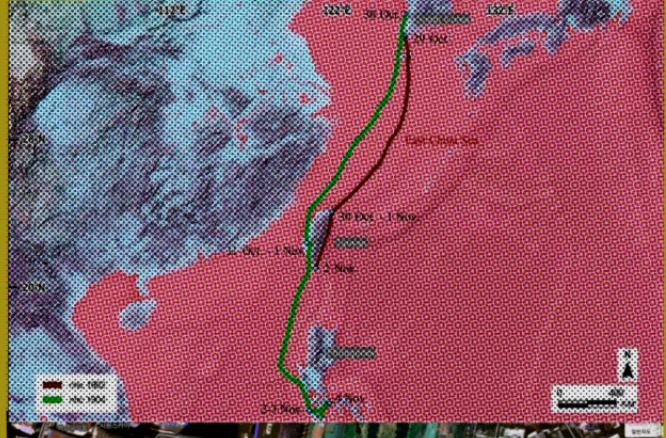


한국
한국

Zannmulgyeol



Even Without Water, the Bird Lands
물이 아니어도 새는 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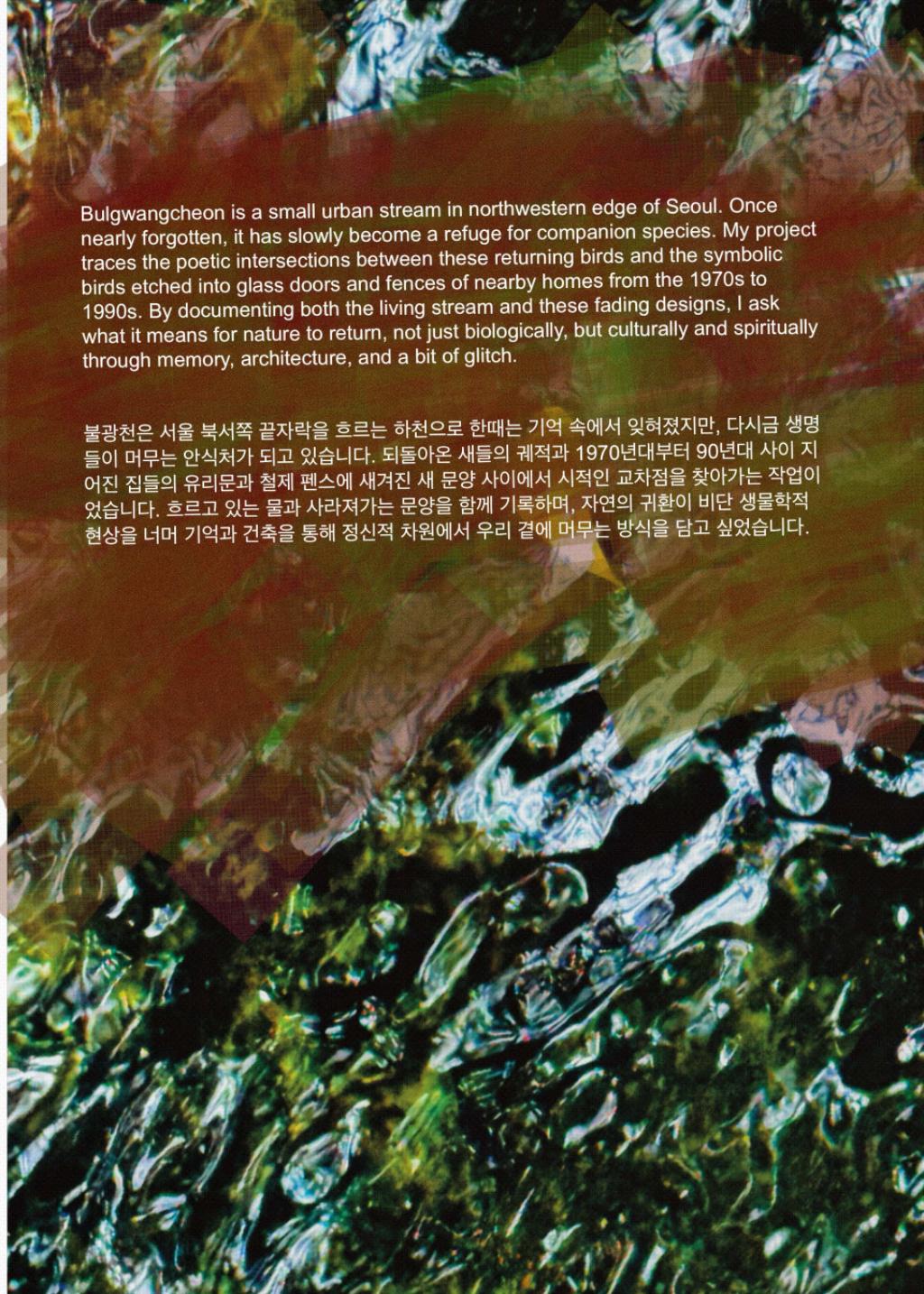




Joonhee Myung (명준희 aka junos) is an interdisciplinary artist whose work spans photography, illustration, writing, translation and video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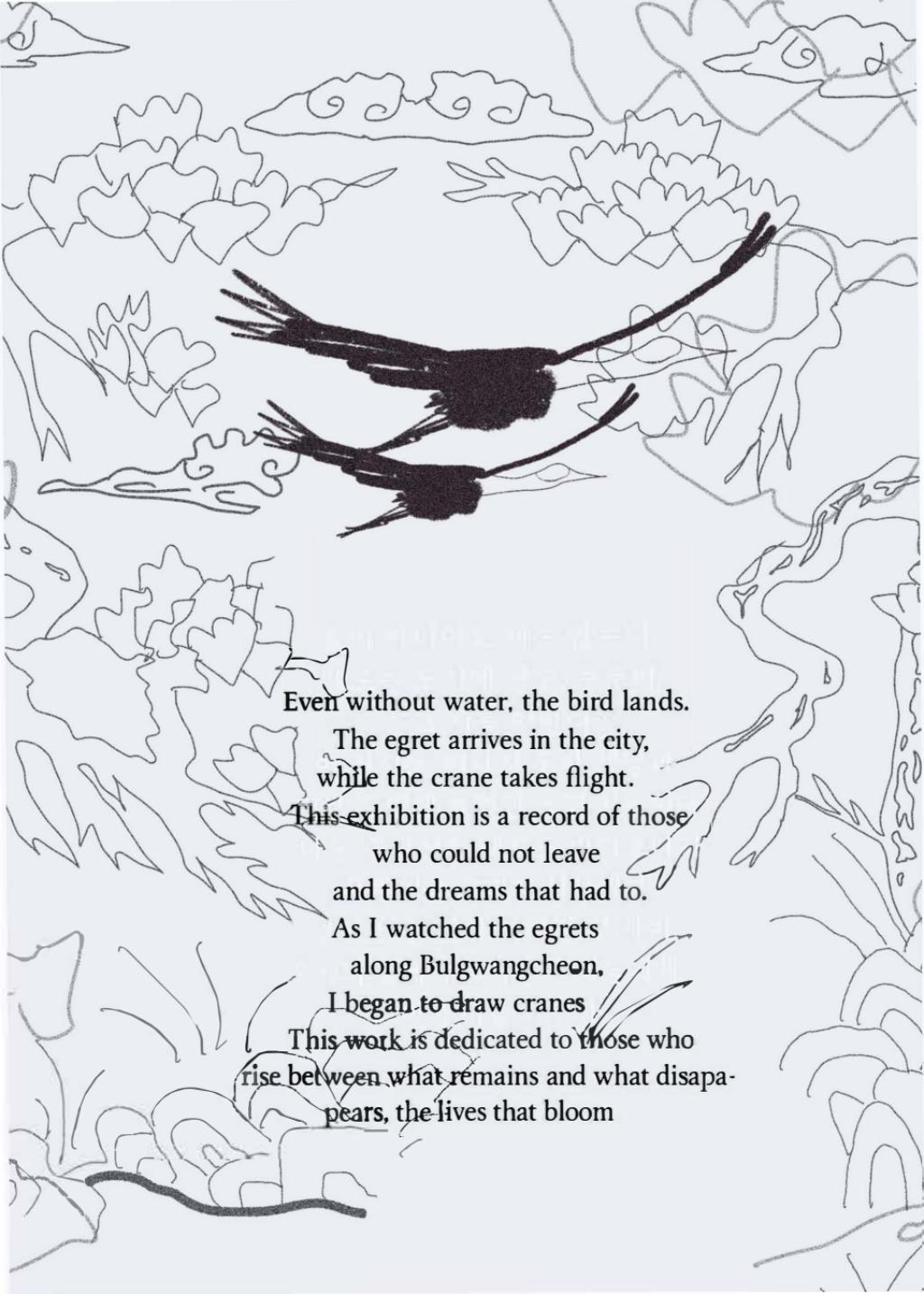
Rooted in Seoul and soon relocating to Chile, her work traces the silent presence of kin life in urban environments, particularly birds, borders, and the ghost-language of old architecture.

She has shown work internationally through platforms like Rubin Museum in NYC, VisualContainerTV in Italy and continues to publish poetic zines that cross disciplines and geographies.



Bulgwangcheon is a small urban stream in northwestern edge of Seoul. Once nearly forgotten, it has slowly become a refuge for companion species. My project traces the poetic intersections between these returning birds and the symbolic birds etched into glass doors and fences of nearby homes from the 1970s to 1990s. By documenting both the living stream and these fading designs, I ask what it means for nature to return, not just biologically, but culturally and spiritually through memory, architecture, and a bit of glitch.

불광천은 서울 북서쪽 끝자락을 흐르는 하천으로 한때는 기억 속에서 잊혀졌지만, 다시금 생명들이 머무는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되돌아온 새들의 궤적과 197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지어진 집들의 유리문과 철제 펜스에 새겨진 새 문양 사이에서 시적인 교차점을 찾아가는 작업이었습니다. 흐르고 있는 물과 사라져가는 문양을 함께 기록하며, 자연의 귀환이 비단 생물학적 현상을 너머 기억과 건축을 통해 정신적 차원에서 우리 곁에 머무는 방식을 담고 싶었습니다.



Even without water, the bird lands.

The egret arrives in the city,
while the crane takes flight.

This exhibition is a record of those
who could not leave
and the dreams that had to.

As I watched the egrets
along Bulgwangcheon,

I began to draw cranes

This work is dedicated to those who
rise between what remains and what disapa-
pears, the lives that bloom





The Doors of Bulgwangcheon

I take a walk through my neighborhood in the outskirts of Seoul nearly every day. It's one of the few quiet joys in my daily routine. Living in a densely built residential zone of Eunpyeong-gu asks me to take more frequent walks along the doors of Bulgwangcheon stream. They are man made streams where birds of many species also have come to wander and perch for a while. There's something emotionally rich about walking alongside them.

Along Seoul's Bulgwangcheon stream, real cranes have come back. The birds, once confined to symbolic form, now walk the city in flesh. They pass construction sites, glide over rooftops, and navigate traffic noise. Quietly, they exist beside us. Remarkably, they adapt in the margins of human design. But their resilience asks: Are we truly ready for coexistence? Can this city, this architecture, this way of life reopen space for life.



Amongst the densely built residential zones I find doors. I believe a city remembers itself through doors. Not by towering buildings, but by the hand-worn doors left in the corners of alleys. The cranes, pine trees, and clouds carved into them were once landscapes wished for by human he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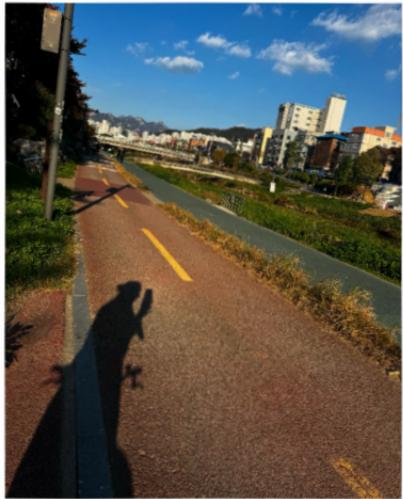
A door is both a boundary and a passage. It connects and divides inside and out, human and nature, memory and forgetting. The doors of Bulgwangcheon no longer serve function ~~they~~ stand as memorials. Places where time passed and winged visitors pause together. From there, I begin anoth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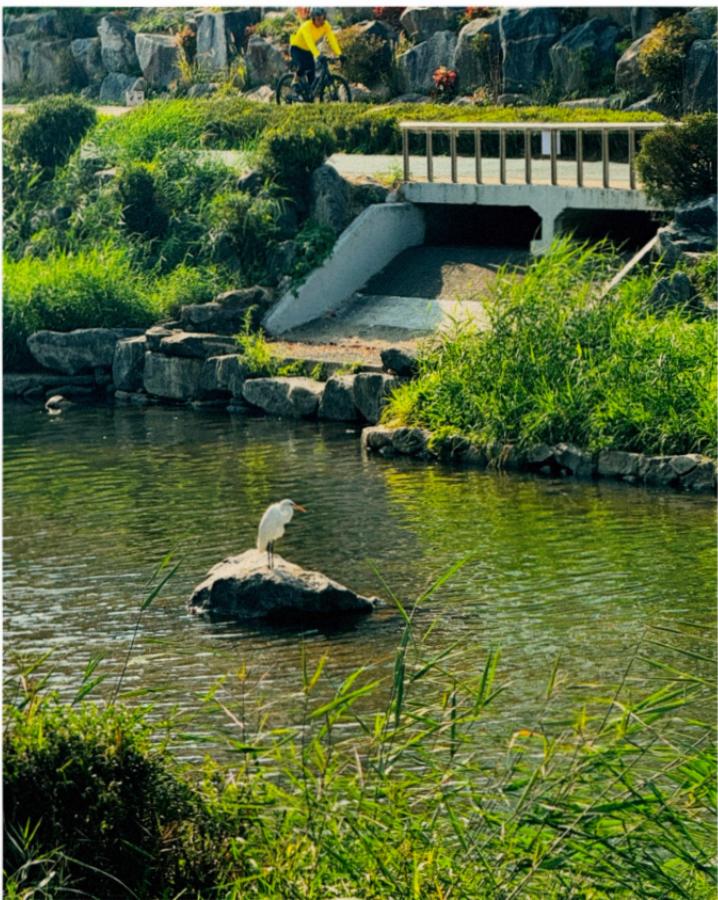


From the 1970s to the 1990s, Seoul saw a sprawl of villa-style apartment buildings and multi-family housing units, often adorned with symbolic designs, cranes, pine trees, bamboo, and clouds, etched onto entrance doors. These were not religious icons like stained glass but carried a worldview of their own: one of protection, quiet wishes, and silent prayers. A worldview that blended Confucian order with shamanistic hope.

The crane symbolized longevity and nobility; the pine, perseverance and integrity; and bamboo and clouds represented grace, purity, and harmony. These symbols expressed a longing for a more harmonious world, one where humans, nature, and the universe coexisted in balance. They stood for more than just safety, they embodied hopes for better ways of living, relating, and finding rhythm in life.

They didn't need to be read or explained. Seen every day at doorways, these motifs slowly seeped into people's consciousness, forming a quiet, enduring language of the everyday.







Living Frames

Cranes in the glass.
Cranes by the stream.
Something is returning.

In the past, windows told stories.
Western stained glass turned sunlight into saints and stars.

In Korea, villa doors held quieter symbols, frosted glass etched with cranes, pines, bamboo, and clouds. Not decoration, but wishes. Long life. Balance. Grace.

Not just personal hopes, but gestures toward a world rightly aligned. Harmony between people, nature, and spirit. A quiet portal to the ideal.

Now they're disappearing. Replaced by smooth glass and modern steel, a city forgetting how it used to see. But not far from these fading doors, real cranes are returning to the Bulgwangcheon stream.

Not symbols. Living bodies. Walking among concrete and weeds.
They've adapted, but that doesn't mean they should have to.
Just because nature adjusts doesn't mean we've done enough.

Maybe the cranes aren't just surviving.
Maybe they're asking us to meet them halfway.

This work isn't about nostalgia.
It's about noticing.

It's about the space between memory and return.
Between image and life.
Between what's gone, and what could still come back.

The cranes in the glass were always telling us something.
The cranes by the stream are telling us again.

We just have to slow down enough to listen.

조용한 귀환

한때, 창은 이야기를 품었다.

서양의 스테인드글라스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빛과 믿음의 장치였다.

교회에 드리운 색유리는 성인의 생애, 우주의 구조, 구원의 약속을 한 조각의 빛으로 전했다. 빛은 벽을 통과하며 서사를 품었고, 공간은 신성을 흘리는 몸이 되었다.

한국에는 1970~90년대에 대거 지어진 빌라형 주택들, 혹은 다세대 주택의 출입문에 유리 위에 새겨진 문양들이 자리했다. 두루미, 소나무, 대나무, 구름.

이들은 종교적 도상은 아니었지만, 분명 일종의 세계관을 품고 있었다. 두루미는 장수와 고결함을, 소나무는 지조와 끈기를, 대나무와 구름은 유연함과 정결함, 그리고 조화를 상징했다.

이 유리문 문양은 보호의 상징이자, 삶의 바람이자, 조용한 기도였다. 입구에 새겨진 한 점의 도상은 유교적 질서와 무속적 염원이 교차하는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일상적 길상을 넘어, 보다 이상적이고 조화로운 세계를 향한 지향이 담겨 있었다. 그 세계는 사람과 자연, 인간과 우주의 조화를 꿈꾸는 세계였고, 단지 삶을 보호받고자 하는 바람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의 형식과 관계, 리듬을 갈망하는 상징적 언어였다.

이 상징들은 매일같이 오가는 문틈에서 자연스럽게 체화되었다. 읽히지 않아도 되었고, 해석될 필요도 없었다. 그것들은 스며드는 세계관이었으며, 단단하고도 조용한 이상을 품은 생활의 장치였다.

이러한 문양들은 동시에 '프레임'이기도 했다. 서양의 스테인드글라스가 종교적 우주를 프레임했다면, 한국의 유리문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이상적 삶의 태도를 프레임했다.

둘은 제작 방식도, 사용 공간도 다르지만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이미지를 통해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깊은 공통점을 가진다. 스테인드글라스가 신의 이야기를 빛으로 말했듯, 두루미와 소나무는 인간과 자연, 삶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문턱에서 말하고 있었다.

서민의 집, 평범한 일상 공간이었던 빌라의 유리문에는 신념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작고도 단단한 문화 생태계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양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대신, 매끈한 유리와 철제, 대리석으로 된 출입문이 자리를 채운다. 미니멀한 디자인, 고급스럽고 보편적인 미감.

지역성과 상징은 지워지고, '관리의 효율성'과 '현대적 이미지'가 우선시된다. 전통 문양은 간혹 복고풍 상점이나 관광지 디자인으로 재현되지만, 그 생명력은 현장성이 아닌 연출에 가까운 표피적 재현에 머문다.





이러한 문양들은 동시에 '프레임'이기도 했다. 서양의 스테인드글라스가 종교적 우주를 프레임했다면, 한국의 유리문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이상적 삶의 태도를 프레임했다.

둘은 제작 방식도, 사용 공간도 다르지만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이미지를 통해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깊은 공통점을 가진다. 스테인드글라스가 신의 이야기를 빛으로 말했듯, 두루미와 소나무는 인간과 자연, 삶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문턱에서 말하고 있었다.

서민의 집, 평범한 일상 공간이었던 빌라의 유리문에는 신념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작고도 단단한 문화 생태계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양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대신, 매끈한 유리와 철제, 대리석으로 된 출입문이 자리를 채운다. 미니멀한 디자인, 고급스럽고 보편적인 미감.

지역성과 상징은 지워지고, '관리의 효율성'과 '현대적 이미지'가 우선시된다. 전통 문양은 간혹 복고풍 상점이나 관광지 디자인으로 재현되지만, 그 생명력은 현장성이 아닌 연출에 가까운 표피적 재현에 머문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라곤, 낡은 건물의 표면에 희미하게 남은 의미의 잔재뿐이다. 과거의 시각 언어는 이제 도시의 구석에서 마주치는, 조용한 파편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 잊힌 문양들의 곁에서 뜻밖의 생명이 돌아오고 있다. 서울 은평구의 불광천. 콘크리트로 덮인 하천을 따라, 진짜 두루미들이 돌아왔다.

유리문 속 상징으로만 존재했던 그 새가,
이제는 실제 몸으로 도시를 걷는다. 공사장을 지나고, 차량 소음을 가르며, 옥상 위를 날아오른다.
사람들이 무심히 걷는 그 옆에서, 두루미는 조용히 존재한다.

놀랍게도 그들은 도시에 적응한다. 강변의 인공 구조물 틈, 인간의 틈새에서 공간을 찾아낸다.

하지만, 이 적응이 곧 '괜찮음'을 뜻하는 건 아니다. 자연이 견디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멈춰도 된다는 신호가 아니다.

오히려 그 회복력은 묻는다. 우리는 정말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이 도시, 이 건축, 이 삶의 방식은 생명을 위한 공간을 다시 열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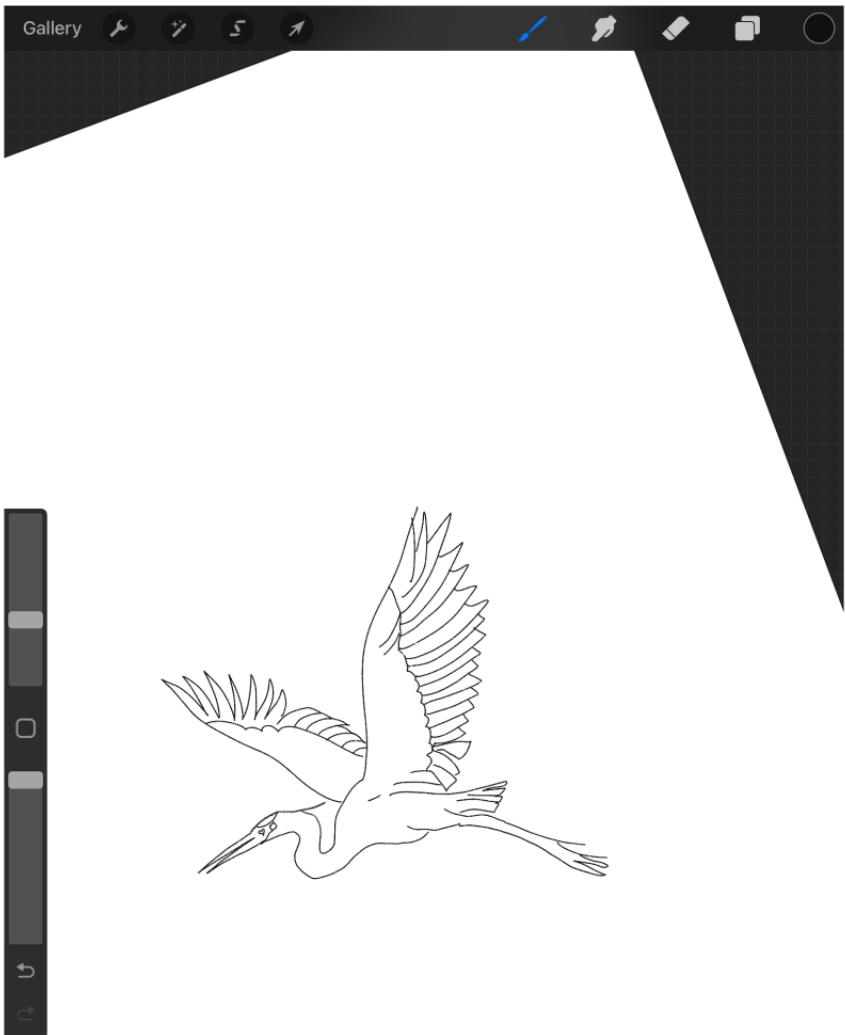
사라지는 문양과 되돌아온 생명이 나란히 존재하는 지금, 프레임은 더 이상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의 창이자, 제안의 장치다.

두루미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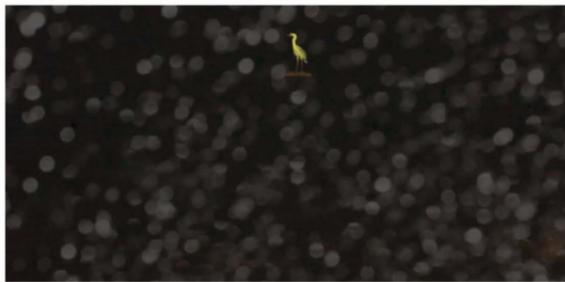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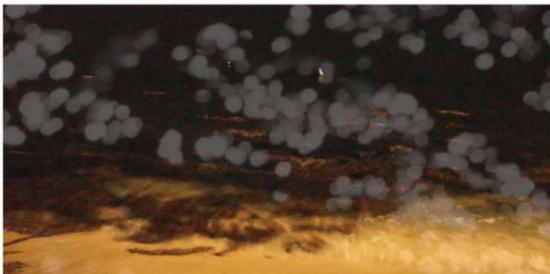
보아달라고.

그림이 아니라, 존재로서 다시 만나자고.









Watch Bird Spirit
<https://vimeo.com/645492124>

2013년에 “하늘을 나는 물고기”라는 비디오 작품을 만든 건 ‘트윈 시스터’라 부르던 네덜란드 친구 제시카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비롯 되었다. 그날 밤, 멀리 바다 한가운데 바위 위에 앉아 있던 하얀 새를 보았다.

그 순간은 마치 오래전 중학교 1학년 시절 가평의 녹음 짙은 밭에서 본 백로의 기억과 겹쳤고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착상처럼 자리 잡았다.

그 새는 백로이자 두루미이고, 학이기도 하다. 이주하는 새이자 정착하는 새. 그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진 새들이 이제는 불광천에서 만나 서로 위로가 되어준다. 그래서 나는 이 새들을 기리고 싶었다. 중학생은 어느덧 40대 중반을 내다 보는 나이가 되었다.

이 아트진 그리고 개인전은 이 생명들을 가리기 위함이다.

The video piece *Bird Spirit*, created in 2013 began during a journey I took with my Dutch friend Jessica, whom I used to call my “twin sister” during my self-proclaimed hippie days. That night, we saw a white bird perched on a rock far out at sea.

That very moment, the sight overlapped with an old memory of an egret I had seen in a lush green field in Gapyeong, back when I was in my first year of middle school. That image has stayed with me ever since, like a lasting imprint or inspiration.

That bird is an egret, a crane, a heron. A migratory bird, and also one that settles. These birds with many names now visit me in my solitary moments along Bulgwangcheon, offering quiet consolation. I wanted to honor them. This zine and my solo exhibition were born from that desire.





